

한국청년방일단(제 7~8 단) 초빙 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2023 의 일환으로써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고등학생 등을 초빙하여,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학교방문, 홈스테이, 시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프로그램(온라인) 한국의 대학생·고등학생 등 64 명
초빙 프로그램(오프라인) 한국의 대학생·고등학생 등 64 명

【방문지】 사전학습 프로그램(온라인) 도쿄도 64 명
초빙 프로그램(오프라인)
제 7 단(대학생) 도쿄도(東京都), 미야기현(宮城県), 오사카부(大阪府),
와카야마현(和歌山県) 34 명
제 8 단(고등학생) 도쿄도(東京都), 고치현(高知県), 오사카부(大阪府) 30 명

【일정】

■ 사전학습 프로그램(온라인) :

2월 17일 (토) 프로그램 설명, 사전학습사항 전달,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오프라인) :

2월 20일 (화) 나리타 국제공항,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입국, 오리엔테이션

2월 21일 (수) 【강의청강】 외무성 ‘새로운 한일관계’

< 제 7 단 (대학생) >

【교류·시찰】 JKAF(대학생방한단 동창조직)과 의견교환 및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新大久保) 필드워크

< 제 8 단 (고등학생) >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2월 22일 (목) < 제 7 단 (대학생) >

미야기현으로 이동, 【강의청강】 ‘역사가 이끄는 재해과학의 신개발’(도호쿠대학재해과학국제연구소), 【대학방문·교류】 도호쿠복지대학의 학생들과 사회과제해결의 대처를 배우는 프로그램(워크숍·의견교환)

< 제 8 단 (고등학생) >

고치현으로 이동, 【예방】 고치현청, 【강의청강】 ‘고치현의 개요와 한국과의 유대에 대하여(자매도시 전라남도와 다우치 지즈코 씨)’, 【시찰】 고치성

2월 23일 (금) <제 7 단 (대학생) >

【시찰】 지진 재해 부흥 시설 ‘후카누마(深沼) 우미노히로바’, 【교류】 학생단체 ‘ReRoots’ 의 학생들과 ‘10 년 후의 농업은 지속될 것인가? 먹거리를 지탱하는 농촌의 미래를 생각한다’ 프로그램(워크숍·의견교환), 오사카부로 이동
<제 8 단 (고등학생) >

하타군(幡多郡) 오쓰키초(大月町)로 이동, 【강의청강·시찰】 숲·강·바다의 연결(생활쓰레기와 바다의 환경 및 생태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시만토시(四万十市)로 이동

2월 24일 (토) <제 7 단 (대학생) >

【시찰】 오사카환경산업진흥센터 ‘오사카 ATC 그린에코플라자’, 와카야마현로 이동, 【강의청강】 미나미키슈(南紀州) 지역의 매력과 SDGs 활동,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제 8 단 (고등학생) >

【시찰·체험】 가쓰오다타키 체험(점심 겸),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월 25일 (일) 【교류】 홈스테이

2월 26일 (월) 홈스테이 종료 후 집합

<제 7 단 (대학생) >

【시찰】 해양오염 현상과 SDGs (시하라·志原 해안), 【시찰】 저출생 현상과 의견교환(아고 초등학교·미마이 중학교), 【시찰】 지역의 과제에 대한 소개와 토의, 성과보고회 준비

<제 8 단 (고등학생) >

【학교방문·교류】 고치현립 나카무라 고등학교, 고치시로 이동

2월 27일 (화) <제 7 단 (대학생) >

오사카부로 이동, 【시찰】 최신 환경기술 및 내진·제진구조 ‘아베노 하루카스’, 성과보고회

<제 8 단 (고등학생) >

오사카부로 이동, 성과보고회

2월 28일 (수)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4년 2월 21일 【강의청강】 ‘새로운 한일관계’



2024년 2월 22일 【학교방문·교류워크숍】 도호쿠복지대학 ‘한일의 사회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를 심화시키자’



2024년 2월 22일 【예방】 고치현청



2024년 2월 23일 【교류워크숍】 학생단체 ‘ReRoots’와 ‘10년 후의 농업은 지속될 것인가? 먹거리를 지탱하는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다’



2024년 2월 23일 【강의청강·시찰】 숲·강·바다의 연결



2024년 2월 24일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024년 2월 26일 【시찰·교류】저출생 현상과 의견교환(아고 초등학교·미마이 중학교)



2024년 2월 26일 【학교방문·교류】고치현립 나카무라 고등학교

3. 참가자 감상 (발췌)

◆ 한국 대학생

저에게 이번 방일은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알찬 내용에 대해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대학생들과의 교류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SDGs 관련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한일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하이쿠를 좋아하는데 센다이에서 대학생들과 교류했을 때 하이쿠를 좋아하는 학생과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하이쿠를 소개하고 하이쿠를 읊는 소리를 녹음한 추억이 아주 인상 깊어 남아 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저는 일본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부족했고 이번이 첫 일본방문이었기 때문에 백지상태로 보고 들은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배우자는 생각으로 참가했습니다. 동세대 교류와 홈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 분들과 장래의 꿈이나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여유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지나친 부담은 내려놓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첫 방일은 정말로 귀중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 대학생

도호쿠복지대학의 학생들을 비롯한 동세대와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 서투른 일본어지만 어떻게든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기뻐했습니다. 또한 만났던 다양한 일본 분들과 주제이기도한 SDGs 관련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일본문화를 배우고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8박 9일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많은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다양한 시찰과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의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귀국 후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 하고 미래의 한일 양국이 안게 될 다양한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홈스테이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시찰들도 매우 즐겁고 도움이 되는 것들만이었지만 홈스테이처럼 일본인의 사회로 직접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의 상냥함과 따뜻함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고치현 하타군에 있는 가시와지마(柏島)의 깨끗한 바다를 제 눈으로 보고 해양쓰레기 문제(특히 마이크로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서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4. 일본 측 감상(발체)

◆ **센다이를 거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단체**

이번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해외교류였습니다. 우선은 동일본대지진과 우리 지역의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농촌의 지속·유지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청년들의 농촌 이탈은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사례에 대해 알려 주셔서 일본과 비교하거나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신선하고도 의미있는 교류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류도 즐기면서 동일본대지진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미나미키슈 호스트 패밀리**

도코노마가 있는 일본 전통식 방에 숙박했는데 다다미, 쇼지(障子), 족자 등 수업에서 배운 대로라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같이 요리하고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해 질문하고 다양한 일본의 가정을 체험하였습니다. 헤어질 때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해 주어서 저희도 기뻐합니다. 학생들이 다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있으며 솔직하고 정말 좋은 학생들이었습니다.

◆ **고치현 시만토시 호스트 패밀리**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의 문화·습관·관광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어로 한 회화교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 손자에게도 이번의 만남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고치현립 나카무라 고등학교 학생**

처음에는 말이 통할까 불안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줘서 정말 기뻐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교류를 통해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라고 느꼈으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해외 유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해저드 맵과 비상 반출 배낭 등을 모르는 학생이 많고, 재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 놀랐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새로운 한일 관계’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일의대수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데,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 국가라는 뜻이라고 한다.
여러 번의 교류를 통해 한일 간 관계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케이팝,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문화 & 사회 & 경제 교류로
한일 모두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또한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역사 문제도
하인 가 시리를 바탕으로



신오쿠보 역에서 신오쿠보 의원 이수현씨 추모 동판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학교 수업에서나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많이 이수현
씨의 이야기를 접했는데... 역시 실제로 정말 역 중앙
에 추모 동판이 있는 걸 보니까 확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국적을 가리지 않은 용기 있고 선한 행동을 여러차례 배우고 또 느끼며 저
도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21일(블로그 발체)
외무성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강의를 들
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
웃 나라 ‘일의대수’의 관계였으며 여러 번의
교류를 거쳐 관계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K-POP 과 한국 드라마·영화
등이 인기를 끌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애니메
이션과 영화 등이 인기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 경제교류로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성장
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또한 아
직 해결되지 못한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Naver Blog)
신오쿠보 역에서 의인 이수현 씨 추모 동판을
보고 왔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학교 수업
과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많이 이수현 씨 이야
기를 접했는데... 역시 실제로 정말 역 중앙
에 추모 동판이 있는 걸 보니까 확 마음에 다
가오더라고요.
국적을 가리지 않은 용기 있고 선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배우고 또 느끼며 저도 좋은 영향
을 받았습니다.



시다,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전폭 하고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사건 경험은 정말 가슴이 들뜨는 추억이 아닐 수 없다. 도쿄에서
샌다이까지 최신형 고속열차인 하야부사를 타거나, 기차 안에서 에키벤을
먹는다가 하는 것은 정말 남만으로는 남겨두었던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
행복했다. 샌다이에 도착하자 새하얗게 물든 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새하얗게 내린 눈은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고, 그 상태로 도호쿠 대학에
도착해 감의를 들게 되었다. 강의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재해 속에서도 후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후에는 도호쿠복지대학으로 이동해 방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일 양국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앞에서 진행해주었던 전대를
형식의 교육은 다들 성우처럼 멋진 목소리와 함께여서 어릴 적으로
돌아갔던 것만 같아 후회해서 보게 되었다. 이후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2차까지 가며 매우 친해졌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념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몇번 더 할 수 있다면 그제 행복할
뿐이다.

만나서 기뻛고, 언젠가 다시 보자!
会えて嬉しかったし、いつかまた会おう!



2024년 2월 22일(Instagram 발체)

2024년 2월 23일 (Instagram)

오늘은 도호쿠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후세를 위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의 중요성 등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도호쿠복지대학에서 한일 양국의 과제와 방재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으며 한일 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공통된 과제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밖에도 신칸센에서의 에키벤과 선다이에서의 설경, 많은 일본 친구와 교류해서 가슴이 들뜨는 등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경험들만 있었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만나서 기뻐고 언젠가 다시 보자!

오늘은 바다 생태계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배우고 환경이 좋은 바다에서만 나온다는 미세 조개를 찾아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미세 조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거의 바로 눈앞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정말 아팠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Instagram 발체)
 오늘은 고치 현립 나카무라 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학교의 운동·문화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방재 수업에서 고치현에 34미터나 되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서로가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수업을 들어준 일본 학생 여러분! 환영 고마워!!

2024년 2월 26일(난키시라하마·南紀白浜 커뮤니티방송 비치 스테이션: FM 생방송 프로그램 'We Love 난키시라하마!')
 저출생 현상과 의견교환을 위해 방문한 시라하마 정립(町立) 아고 초등학교·미마이 중학교에서 초중학생과의 교류의 모습이 프로그램에서 생방송으로 소개되었으며, 단장과 단원의 인터뷰도 포함해 10분 정도 방송되었습니다.

6. 보고회에서 방일 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도쿄도, 미야기현, 오사카부, 와카야마현, 고치현)

<p>액션 플랜 2024년~2025년</p> <p>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방문지 후기 업로드 및 일본의 매력 관련한 내용 포스팅 • 일본 대학생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문화한소통을 위한 일과 공부 <p>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를 기반으로 방일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 • 일본 내 대학 교환수학을 통한 언어, 문화, 스포츠, 예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거주 시 아끼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국내 정규 코퍼트 스테디 동아리 개설 <p>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LPT 자격증 취득 • 방문지 대학원생 및 공무원 채용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지 및 확산적 노력 • 방문지 대학 일본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소개 <p>단계 목표 + 장기 목표 = 한일의 융화적 관계 형성</p> <p>sns 홍보, 일본 어학시험 준비 및 일본 학생과 비대면 교류</p> <p>일본 교환학생 집에 방문하여 홈스테이 및 일본 학생들과 교류</p> <p>한일의 융화적 관계 형성</p>	<p>JENESYS 2023</p> <p>#What we learned</p> <p>일본 JPM의 다양한 사업 체험함으로써 경제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지에서 생소한 다양한 문화가 많았으며, 일본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지에서 생소한 다양한 문화가 많았으며, 일본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p> <p>#What we felt</p> <p>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지에서 생소한 다양한 문화가 많았으며, 일본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p> <p>#What we will do</p> <p>한일 양국 간의 이해를 위한 open-mind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지에서 생소한 다양한 문화가 많았으며, 일본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p>
<p>【방일 중의 배움】</p> <p>이번 8 박 9 일 동안에 많은 강의·시찰 등의 경험을 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져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재에 대해서 깊이 배워 생각하는 계기도 되어 오사카 ATC 에코플라자나 미나미키슈에서는 일본의 SDGs 관련대책이나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세대의 일본친구들의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에 놀랐으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에 관한 교육은 일본이 앞서 있으며 요즘 한국에서도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아도 일본의 방재교육, 그리고 감재(減災)라는 생각은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알리고 싶습니다. • SDGs 관련이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해서 이번에는 많은 동세대의 일본인, 호스트 패밀리 분들, 미나미키슈 지역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예상 이상으로 한일 양국에 있어서 공통된 과제가 많아서 놀람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참고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한 연구 등 	<p>【방일 중의 배움】</p> <p>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일본과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본 일본은 다른 부분이 많아서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에는 우리와 같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류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개선은 물론 더 나은 한일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다우치 지즈코 씨와 이수현 씨의 공적을 알고 두 분과 같은 따뜻한 마음가짐을 닦고 싶습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부터 SDGs 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의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학교방문을 했을 때 일본의 방재의식과 대책에 대해 알았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과 함께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강화 •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다(히라가나/가타카나)

<p>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느꼈습니다.</p>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단계: SNS 에서 방일단의 내용과 일본의 매력을 포스팅해서 일본의 동세대 친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본어를 공부한다. ▪ 제 2 단계: SNS 발신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 대학생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일본의 각 대학과의 교류나 유학정보 등을 포함한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JLPT 스터디 동아리도 개설 ▪ 제 3 단계 : JLPT 합격, 일본 관련 다양한 활동이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일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주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산한다. ▪ 상기한 단기목표+장기목표=한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LPT(일본어능력시험), SJPT(일본어말하기 시험)와 같은 일본어 관련 시험에 도전 ▪ 일본어에 관한 동아리를 만든다. ▪ 일본기업의 세미나에 참가한다. ▪ 교환유학제도에 도전한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